

## 한국청년방일단 (제 2 단) 초빙 사업의 기록

###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의 일환으로써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방재대책 (나가노현 이이다시의 사례)’라는 테마 아래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학교방문,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한국의 고등학생 등 30 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한국의 고등학생 등 30 명

【방문지】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30 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나가노현(長野県), 아이치현(愛知県)  
30 명

#### 【일정】

##### ■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

7 월 18 일(화) 프로그램 설명, 사전학습사항 전달, 참가자의 대외 발신

##### ■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

7 월 25 일(화) 하네다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7 월 26 일(수) 【강의】 ‘새로운 한일관계’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新大久保) 필드워크

7 월 27 일(목) 나가노현으로 이동, 【예방】 나가노현 이이다시청

【강의·시찰】 이이다시의 방재대책과 방재시설 (방재창고, 위기관리실 등)

7 월 28 일(금) 【강의】 이이다 대화재와 사과나무길 (필드워크 포함)

【학교방문·교류】 나가노현 이이다후에쓰고등학교

7 월 29 일(토) 【강의】 사부로쿠 (三六) 재해와 덴류강 (필드워크 포함)

【교류】 홈스테이

7 월 30 일(일) 【교류】 나가노현 이이다시 (長野県飯田市) 에서 홈스테이

7 월 31 일(월) 【시찰】 덴류강 주변

【강의】 이이다시의 방재대책 (워크숍 포함)

8 월 1 일(화) 아이치현으로 이동, 【시찰】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성과보고회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8 월 2 일(수) 중부국제공항에서 출국

## 2. 프로그램 기록사진



2023년 7월 26일 【강의】 ‘새로운 한일관계’



2023년 7월 27일 【예방】 나가노현 이이다 시청



2023년 7월 27일 【강의·시찰】 이이다시의 방재대책과 방재시설 (방재창고, 위기관리실 등)



2023년 7월 28일 【강의】 이이다 대화재와 사과나무길 (필드워크 포함)



2023년 7월 28일 【학교방문·교류】 나가노현 이이다후에쓰고등학교



2023년 7월 29일 【강의】 사부로쿠 재해와 덴류강 (필드워크 포함)



2023년 7월 29일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3년 7월 31일 【강의】 이이다시의 방재대책(워크숍 포함)

### 3. 참가자 소감 (발췌)

#### ◆ 한국 고등학생

이번 테마인 방재대책에 대해서 일본 각지에서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는 이이다시 시청 내의 방재설비를 견학하고 관련된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체감함으로써 방재시스템의 최전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 한국 고등학생

원래 일본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본의 거리를 걷고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 한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어서 일본을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한국과의 다른 점을 체감할 수 있어서 방일 전보다 일본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 한국 고등학생

학교방문과 홈스테이 등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었으며 머리만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의 문화와 가정요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4. 일본 측 소감 (발췌)

#### ◆ 나가노현 이이다시 관계자

처음으로 한국에서 고등학생의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 중에는 일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는 과거에 시가지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된 후 지역 중학생들의 열의로 조성된 ‘사과나무길’과 함께 마을이 부흥해 나간 역사와 호우에 의한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자기 자신이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다른 멤버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 이이다시 호스트패밀리

홈스테이하러 온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해서 놀랐습니다. 손자 (고등학교 3 학년)도 한국에서 학생들이 온다고 하자 놀러 와서 모두 함께 서예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날의 아침식사는 학생들이 한국 요리를 선보여 준다고 하여 약 1 시간에 걸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 ◆ 나가노현 이이다후에쓰고등학교 학생

상상했던 것보다도 일본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국 측 학생대표가 했던 인사 가운데 “우리들의 이러한 교류가 계속됨으로써 한일의 사이가 더 돈독해져 간다면 좋겠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대대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서로의 나라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친구가 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느꼈습니다.

◆ 나가노현 이이다후에쓰고등학교 학생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POP 을 듣고 있어서 동경하던 한국의 사람들과 친해져서 마치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를 통해서 친해진 아이와는 서로의 나라에서 다른 점과 공통된 점을 서로 전하면서 지금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라고 서로 약속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매우 기쁩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p>외지에서 한국인 유학생 분이 송고한 희생을 치루셨다는 사실은 정말 슬펐다. 하지만 그 일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억되고 있음을 생각하니 마음 한 켠에는 뭉클한 마음마저 들었다. 직접 신오쿠보 역의 추모비에 가서 추모도하니, 나도 이것을 머리속 한 켠에 소중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DAY2] 오늘은 나가노현에 위치한 이이다시에 방문했다. 이이다시는 일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대화재가 크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였으며 여러 자연재해로 사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문한 이이다시청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대책이나 방안 등이 체계적이며 대비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p>
<p>2023년 7월 26일 (Instagram)</p> <p>외지에서 한국인 유학생 분이 송고한 희생을 치루셨다는 사실은 정말 슬펐다. 하지만 그 일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억되고 있음을 생각하니 마음 한 켠에는 뭉클한 마음마저 들었다. 직접 신오쿠보 역의 추모비에 가서 추모도하니, 나도 이것을 머리속 한 켠에 소중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2023년 7월 27일 (Instagram)</p> <p>오늘은 나가노현에 위치한 이이다시에 방문했다. 이이다시는 일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대화재가 크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였으며 여러 자연재해로 사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문한 이이다시청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대책이나 방안 등이 체계적이며 대비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이곳 건물은 8년 전에 지어졌는데, 발전기가 여러 종류라 콘센트 색이 여러가지라고 한다! 흰색은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평범한 콘센트 빨강은 비상발전기에 연결된 것, 녹색은 비상발전기, 2차발전기 다 연결된 것, 검정은 태양광 발전기 축전지에 연결된 것이다.</p>	 <p>#한일문화교류 #JENESYS 이번 방일단 경험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연 고등학교 교류회였다. 일본어 교서로서 국제 교류에 많은 힘을 써야하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역시 학생들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다 🍀 한일 양국 간 관계를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교류가 계속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p>





**【방일 중의 배움】**

일본의 방재대책을 이이다시의 대처에서 배움으로써 일본인의 건설적인 사고방식과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 이이다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피난정보가 전달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 이외에 지금까지의 재해의 경험에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방재에 대처하고 마을 조성에 임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 피난할 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소모품과 식료품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으니 피난소에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대책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액션플랜】**

-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하고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계속 접한다.
- 일본의 방재대책과 방일단에서 경험한 것, 한일의 차이점을 소속학교에서 발표한다.
- 홈스테이 가정에 편지를 보낸다.
- 이이다시 이외의 지역의 방재대책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방일 중의 배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선도해 나가는 같은 또래 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국적은 다르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본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 이이다시 주민분들은 피난경로와 피난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난키트 준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이다시 시청 내의 위기관리센터에는 발전기(보통, 태양광, 1차 비상용, 2차 비상용)마다 콘센트 삽입부분의 색깔을 바꾸어 놓는 등의 다양한 공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 각지역이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러한 대처에 대해 학교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액션플랜】**

- 일본의 대학에 유학하기 위해 소논문 대책을 위한 일본어 학습을 한다.
- 일본어 공부를 비롯해 하루에 단어를 20 개씩 암기한다.
- 방일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을 일본어 교사로써 수업에 응용하여 안전에 관한 문제와 방재대책을 계획해 실천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